

새로운 탄생 위한 산고 함께 하자

《도덕교육의 파시즘》에 공감하며



김상봉 숭실대 철학과 교수

김상봉 교수의 저술인 《호모 에티쿠스》를 수 년 간 철학과 2학년 윤리학 강의교재로 사용해 오면서 정말 이만한 책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해오던 터라, 아쉽게도 칸트에서 끝나는 그 책을 '완성' 할 후속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김 교수가 내놓은 책은 서양의 윤리학사 후반부를 다루는 이론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윤리의 현주소를 짚어내면서,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도덕적 사유의 핵심을 설파한 《도덕교육의 파시즘》이었다. 그가 생각한 '완성'은 이론적 저술의 완결이 아니라 윤리학적 작업의 완결이었던 것 같다.

유신과 5공 시절에 중등교육 과정을 지냈던 사람이라면 국민윤리라는 괴상한 과목을 기억한다. 수업 내용보다는 교과서에 대한 도덕선생님의 냉소적 태도나 또는 진도와 무관하게 들려주신 이야기만 떠오르는 수업 말이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자식을 중·고등학교에 보내며 들여다본 지금의 도덕교과서에 대한 느낌도 착잡했다. 김상봉 교수는 바로 이 교과서들을 분석했다.

그렇게 달라졌음직한 오늘의 도덕 교과서의 내용도 사실상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는 교과서 저자들에게는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진정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상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기존의 문화나 가치관을 잘 습득하여 따르는 노예적 인간상이라는 그의 지적은 정확하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유를 유도하기는커녕 다른 과목에서 다루어도 좋을 통일, 이데올로기 교육, 전통문화 등의 내용으로 가득 찬 우리의 도덕교육을 한마디로 파시즘 교육이라고 잘라 말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분석과 평가를 보면 평소에 느끼던, 학교와 군대의 동질성의 근

거가 확연히 드러난다. 아니나 다를까 김상봉 교수는, 학교는 “수동적 침묵 속에서 주어지는 것을 받아 들일뿐인” 병영과 같다고 일갈한다.

수많은 다양한 사례들은 생략하자.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소위 “학제적 연구”라는 이름에서다. 이 과목이 기초해야 할 철학은 배제되고, “어떻게 윤리가 철학의 분과인가?”라는 기본도 안 된 질문이 나오는 작금의 현상의 발생학적 기원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유신시대부터 국민윤리 교육을 지향해왔던 정권은 5공 때 철학으로부터 윤리를 분리시켰다. 전두환 정권은 서울대에 국민윤리교육과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곳이 아주 최근 까지도 도덕교육의 핵심을 결정해 온 곳이다. 지금도 그곳은 “국민윤리”라는 이름을 학과명으로 고수하고 있다.

김상봉 교수를 통해 우리는 이제야 국민윤리와 관련된 과거사 반성을 제대로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학과, 특정 교과목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는 제대로 된 윤리교육, 학생들을 자율적 인간으로 만드는 도덕교육, 아니 제대로 된 학교문화 정립을 위한 첫 걸음을 여는 반성문이다.

내가 아는 김상봉 교수는 따뜻한 사람이다. 남에게 싫은 소리하면 스스로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한다. 하지만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 현실의 부조리를 보고서도 모른 채 하며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했다더라면 오래 전에 제도권 속에 들어가 배부른 소리나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아파하면서 뱉어놓은 쓴 소리들에 고개위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우리 새끼들의 참된 도덕교육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는 없을까. 《도덕교육의 파시즘 : 노예도덕을 넘어서》를 다시 '함께' 읽으면서 말이다.